

건강칼럼

대장용종

만 성 변비와 설사, 복부 팽만감 등 복통이 자주 느껴지는 경우 혹은 원인 미상의 빈혈이 지속되는 경우 대장용종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대장용종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이 높고, 술자리와 흡연,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고 지나친 지방질과 육류 섭취 때문에 더 늘어가고 있다.



최영길

굿모닝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대장용종이란?

대장용종은 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되어 장의 안쪽에 돌출된 것을 말하며 조직학적으로 종양성인 선종과 비종양성인 용종으로 분류된다. 비종양성 용종으로는 과증식성용종과 염증성용종, 과오종 등이 속하는데 악성으로 변화하지는 않는다.

종양성용종인 선종은 악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관상선종과 관상용모선종, 용모선종, 돌연변이성 이형성용종, 카시노이드종양 등이 있으며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용종에 목이 있는 유경성용종, 잘록한 허리가 있는 아유경성용종, 무경성용종이 있다. 대장 점막의 표면에 돌출된 일종의 혹으로 그 모양이 마치 피부에 생긴 사마귀나 조그만 혹 모양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드물었지만,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대장내

시경을 시행하는 환자 20~30% 이상에서 용종이 발견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대장용종과 대장암

오랫동안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앓고 있다면 대장암용종 위험도 커지게 된다. 가족력 또한 요인이 된다.

대장암용종은 유전적인 요소가 커서 부모나 인척 중에 대장암을 앓았다면 대장암에 걸릴 위험도 커지게 된다.

식습관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고지방질 음식을 많이 섭취할 때 채소, 과일 등 섬유소가 부족한 경우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섬유질은 장내 배변촉진 효과가 있어 암 유발 물질의 장벽접촉을 줄여준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30~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도

암 발생률을 높여준다.

특히 술과 흡연을 같이 할 경우 위험률은 더 커지게 된다. 생활습관도 대장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운동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장내 음식물 정체 시간이 길어져 암 위험도 커지며, 비만 또한 대장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된다.

▲내시경검사와 용종절제술

대장내시경 검사는 병변을 쉽게 관찰하고 동시에 조직검사와 용종절제술도 가능해 검사를 통한 진단과 치료가 함께 진행된다.

내시경 검사 중 병소가 관찰되면 100배까지 병소를 확대 관찰이 가능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대장용종절제술 시술 전에는 출혈성 위험으로 아스피린 등 혈액순환계 약물을 1주 정도 끊어야 하고 시술 당일엔 금식해야 하며, 시술 후 장 천공, 출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

의료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금식을 해야 한다.

용종절제술 약 1주 후에는 조직검사 결과를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확인을 해야 하며 특히 조기 대장암이 의심되어 대장용종절제술을 받은 경우, 암의 진행 정도가 중요하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직 검사상 완전 절제로 더 이상의 추가 치료가 필요 없을 경우에도 잔류 용종 유무와 재발을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에서 1년 이내 추적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용종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다발성인 경우 매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족력이 있으면 선종이 발견되면 부모, 자식, 형제 모두에게 대장내시경을 검사할 것을 권한다.

대장암은 다른 악성 암과는 달리 약 90% 이상에서 선종이라는 용종 단계를 거쳐서 암이 된다.

바꿔 말하면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로 암의 전 단계인 대장용종을 발견하고 용종절제술을 통해 미리 제거한다면 대장암의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하다.

대장용종과 대장암에 대한 최선의 예방법은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설

아아 국보 11호가 사라지는 것인가

미륵사지 석탑 복원 결과가 엄중한 충격을 주고 있다. 전복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처참한 꼴을 드러냈다.

감사원이 부정적 복원이라는 판단을 내렸대서 하는 말이 아니다. 복원 됐다는 미륵사 석탑을 보면 누구나 이상하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다.

예전의 석탑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 문자 그대로 삼척동자라도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꼴골이다.

말이 부실 복원이자 이것은 수재 엉터리 복원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엉터리 복원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 그대로 도민을 우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범죄 작업으로 전북 도민의 자존심에 큰 충격을 주다니 너무 분하다. 어찌나 분한지 눈물이 다 날 지경이다.

뺨을 맞고 가슴을 발길질 당했어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륵사 석탑이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했다면 정말 이럴 수는 없다. 얼마 안 되는 백제 유적 중에 겨우 겨우 버려온 미륵사 석탑의 만고공상을 생각했다면 정말 이럴 수는 없다.

제대로 복원할 관념도 안 되는 솜씨로 복원한답시고 미륵사의 본 모습을 흔적마저 없애버렸으니 통탄할 일이다.

이럴 일이면 본래 그대로 두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일제 강점기 몰상식한 이들이 시멘트를 쳐발라 본 모습이 흉하게 망가졌다고 욕을 해놓고 오히려 그보다 못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할 단 말인가.

전복도와 익산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대로는 곤란하다.

상처받은 도민의 마음을 달래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전복도와 익산시는 뉘끼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가짜 미륵사 석탑은 완전히 해체시켜 버려야 한다. 옛 석탑의 석재가 하나도 없는 복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 옛 석탑의 석재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 목숨 살리듯 다시 살리려는 정성을 보여야 한다.

동부권 프로젝트가 궁금하다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해야겠다.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가 궁금하다. 전북도는 예전에 여러 번 선언한 게 있다.

동부권 발전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오래도록 프로젝트 추진이 없으니 별 일이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그 성취를 위해서 힘내야 한다. 또다시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사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예전처럼 말쑥선 날리기 같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동부권의 발전 관심을 반복만 할 게 아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보로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게 없다면 동부권 주민들의 인구 유출은 배가 될 터이다.

전북도는 동부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지난 십수 년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사를 말했지만 그게 그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동부권 발전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동안 발전 기대감을 카운만큼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말할 것이 있는데 주민들은 무슨 사업이고 연속성을 바라보고 있다. 그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발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

진해 성과를 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이쪽의 기대와 달라 지역 발전이 희망 사항에 그칠까 염려가 된다.

전북도는 저력을 보여야 한다. 그 저력이 없다면 그동안 있었던 전북 자존 선언이나 제육 찾기 선언은 그저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존을 공포하고 제육 찾기를 선언했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희망하는 바와 반비례하여 낙후가 심화되고 있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2백만 도민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셀프 자존심일 뿐이다. 팩트는 184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나이트 기성 세대들은 옛날을 회고하고 있다. 지난 1900년대 중반에는 거주 인구가 266만을 헤아렸다. 사정이 이러니 낙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간 균등한 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이상이다.

전북도는 동서 철도 건설 건을 포함해 동부권 발전을 위한 다른 프로젝트에도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동부권에 주민들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독자제언

노인 교통사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왔다. 봄은 따뜻한 날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이 많고, 농촌은 농사준비로 바빠지면서 농기계들의 도로행이 잦아지고 갓길 보행, 무단횡단으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한다.

농촌지역은 도로여건과 교통시설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교통법규 준수인식 미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년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예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고령층의 경우 청장년층에 비해 시각과 청각 등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 중 위기상황에서의 대처가 어려워 사고가 날 가능성을 줄 수밖에 없고, 운전 중 사고뿐 만 아니라 보행 중 교통사고에서도 고령

자는 취약계층이다. 무단횡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등 교통질서 전반에 대한 전체 국민 의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령층에 대한 주의와 관심은 꾸준히 요구된다.

가정에서는 노인들의 야간 외출을 가급적 자제시키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흰색 계통의 밝은 옷 착용, 갓길 통행, 횡단보도 이용, 무단횡단 금지 등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당부와 관심이 필요하다.

교통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시설 보완은 물론 운전면허제도 개선과 같은 국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모든 도로이용자들의 교통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을 간절히 소망한다.

백요셉 고령철서 흥덕파출소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환호하는 케냐 과학고사 타비치



케냐 과학고사 피터 타비치(가운데)가 2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글로벌 교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호명되자 환호하고 있다.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